

신라 서원경의 위치와 범위

강민식*

-
- I. 머리말
 - II. 신라의 청주 진출과 서원소경 설치 배경
 - III. 서원경의 치소와 구조
 - IV. 서원경의 쇠퇴
 - V. 맺음말
-

I. 머리말

신라는 삼국통합 직후인 685년(신문왕 5)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을 두면 서¹⁾ 비로소 9주 5소경 체제를 완비하였다. 9주 5소경의 설치 배경은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州는 군사적, 소경은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였으며, 소경에는 정복지역의 지배층을 분산 수용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포화상태의 귀족을 분산시키고 고구려나 백제의 거점을 피해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살펴볼 수 있다.²⁾ 이와

*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 1) 三月 置西原小京 以阿湌元泰 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5년).
- 2)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小京攷」 『朝鮮學報』5, 조선사연구회 ; 林炳泰, 1967. 「新羅小京考」 『역사학보』35·36, 역사학회, 84~94쪽 ;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86~98쪽.

함께 5소경의 역할과 도시구조도 한층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³⁾

그렇지만 5소경의 설치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라는 삼국통합 이전 아시촌소경(514)과 국원소경(557), 북소경(639)을 두어 고구려의 3경 체제를 모방하고 중간 거점으로 삼았다.⁴⁾ 곧 아시촌소경이 가장 먼저 폐지되고 북소경은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곧 폐하였다(658). 삼국통합 이후 북원소경(678)과 금관소경(680), 그리고 서원·남원소경이 설치하면서 국원소경과 함께 5소경을 이루었다. 따라서 중고기의 3소경이나 이후의 5소경도 영역 확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설치시기가 다른 만큼 각 소경마다 그 배경도 상이할 것이다. 실제 옛 고구려와 백제 땅에 각 두 곳, 가야에 한 곳의 소경을 설치하였는데, 정복한 순서와 다른 시기에 설치하였다. 5소경만 놓고 본다면 가장 늦게 차지한 옛 고구려 고지에 가장 먼저 소경을 설치한 셈이다. 따라서 소경 설치의 배경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금관소경과 남원소경에 대한 개별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북원소경도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다행히 5소경 중 가장 연구성과가 축적된 곳은 서원소경⁶⁾과 국원소경⁷⁾이다.

3)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の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여호규, 2002.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신라 5소경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7-총론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全德在,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209, 역사학회.

4)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63~86쪽.

5) 이재환, 2012. 「統一新羅時代 北原小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6) 서원소경, 서원경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기석 외, 2001.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41, 호서사학회 ; 김영관, 2008. 「新羅 西原小京 設置의 역사적 배경」 『청주 복대동유적』,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7) 張俊植, 1998. 『新羅中原京研究』, 학연문화사 ; 양기석, 2005. 「國原小京과 于勒」 『충북사학』5, 충북대학교사학회 ; 田中俊明, 2011. 「中原小京の諸問題-特に國原小京の意義」 『선사와 고대』34, 한국고대학회 ; 노병식,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원경⁸⁾은 주로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서원경 또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치 배경을 찾아보기로 한다. 설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집중된 연구는 서원경의 치소 문제이다. 치소로 언급되는 곳은 모두 네 곳으로 와우산성⁹⁾·唐山土城¹⁰⁾·상당산성¹¹⁾·청주읍성¹²⁾ 등이다. 또 문헌기록 속의 서원술성과 서원경성을 달리 보아 각각 상당산성과 와우산성으로 본 견해도 있다.¹³⁾ 소경성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축조되었을 것이니¹⁴⁾ 설치 배경과 연동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대부분 757년(경덕왕 16) 소경에서 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삼국사기』에는 757년 소경을 경으로 바꾼 기사가 없다. 또한 같은 책 지리 해당 5소경은 金海小京·中原京·北原京·西原京·南原小京으로 차이가 있다. 남원소경만 경덕왕 때 개명 기사가 없고 나머지 소경은 ‘景德王改名[爲]’이라 하였다. 대체로 757년 9주 정비기사에 의거 이때 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사에서조차 여전히 州 관할 小京이 그대로다.
- 9) 車勇杰, 1993. 「西原京의 位置와 構造」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10쪽 ; 朴相侁, 1995. 「淸州 臥牛山の 遺蹟과 遺物」 『博物館誌』4,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156~157쪽 ; 양기석·강민식, 2000. 「新羅 西原京城의 位置와 運用」 『충북사학』11·12, 충북대학교 사학회, 132쪽 ; 이기봉, 2014.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충청도 고을의 역사와 읍치 이해(2)」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2)』, 국립중앙도서관, 205쪽. 이기봉은 청주 미원면 성대리의 낭성산성을 백제 때의 통치성으로 보고 685년 서원소경 설치 후 청주도심 가까이로 옮긴 결과, 와우산성을 통치성으로 보았다.
- 10)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64~65쪽.
- 11) 李在俊, 1981. 「沙喙部 銘 平瓦에 對한 小考」 『서원학보』2, 서원학회, 79~80쪽 ;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74~75쪽.
- 12) 羅庚峻, 2000. 「西原京 治址 研究」 『사학지』33, 단국사학회, 89~92쪽.
- 13) 노병식, 2014.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문물연구』2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95~98쪽.

이어 서원경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상당산성 출토 명문화를 통해 행정체계를 다룬 바 있고,¹⁵⁾ 외곽 지역 명문화를 통해 촌락의 범위와 경제적 기반, 서원경 내의 위치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¹⁶⁾ 최근 청주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문헌자료의 영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편년이 가능한 명문화가 출토되는 주거유적과 산성의 분포를 통해 서원경의 범위와 구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라의 청주 진출과 서원소경 설치 배경

1. 신라의 청주 진출

신라는 470년(자비마립간 13) 삼년산성, 474년(자비마립간 17) 一牟城을 쌓아 금강 유역에 도달하였다. 그후 494년(소지마립간 16) 薩水之原에서 고구려군에 밀려 犬牙城으로 물러났다. 5세기 후반 금강유역에 진출하여 청주 인근으로 비정되는 살수지원 전투에서 패한 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백제 동성왕(476~500)과 신라 소지마립간(479~499) 때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유지되면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¹⁷⁾

문제는 薩水之原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곳을 밝힌다면 신라가 고구려와 다투던 경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수의 들판은 청천 혹은 구체적으로 후평리로 보고 있다.¹⁸⁾ 이 견해는 淸川의 옛 지명

14) 이재환, 2012. 「統一新羅時代 北原小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307쪽.

15)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41, 호서사학회, 21~29쪽.

16) 都文善, 2008.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弗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50, 275~288쪽.

17) 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研究』(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15),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82쪽.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淸州牧, 屬縣 靑川縣 在州東六十里 古薩買縣 一云 靑川 高麗改今名來屬 ; 津田左右吉, 1913.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上 : 1986, 아세아문화사, 220~221쪽 ; 金榮官, 2008. 「古代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47쪽.

인 薩買가 살수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먼저 청천으로 고증할 때 한계로 지적된 현 청천면 일대에 너른 들판이 없고 해당 시기의 산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가까운 미원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¹⁹⁾ 다음, 청천현은 470년 축성한 삼년산성이 속한 三年(山)郡의 영현이다.²⁰⁾ 삼년산성 축성 후 4년만에 일모성을 쌓을 정도면 이곳에서 17~19km(미원면·청천면)에 불과한 지역을 고구려군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불어 미원이나 청천으로 비정할 때 고구려군이 접근과 백제군의 구원이 가능한 지점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²¹⁾ 미원이나 청천은 백제의 거점인 웅진이나 청주로부터 동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이다. 실제 서쪽에는 신라가 차지한 일모성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남금북정맥의 준령을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살수지원이 특정 城名을 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지역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청주 인근에서 고구려군의 접근을 고려한다면 금강변이나 그 지류인 미호천 유역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밝혀진 대로 세종 남성골산성은 적어도 5세기 후반 고구려군이 쌓은 산성으로 밝혀졌듯이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진천을 경유한 노선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살수지원을 청주,²²⁾ 또는 청주에서 증평으로 이

19) 양기석, 200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34쪽.

20)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漢州.

21) 따라서 살수지원을 충주 살미로 본 견해(김병남, 2002. 「百濟 熊津時代의 北方 領域」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148쪽)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견해는 청주목 관할의 靑川縣의 옛 이름인 薩買와 『삼국사기』 지리지의 水城郡이 본래 고구려의 貫忽郡이라 한 기록에서 水·川의 우리말이 買라 하였다. 또한 충주 泔味面の ‘살’과 ‘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薩水之原’을 청천에서 살미로 이어지는 達川 주변으로 비정하였다.

22) 李丙燾, 1983.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60쪽 ; 鄭永鎬, 1989. 「高句麗의 錦江流域進出에 대한 小考」 『汕耘史學』3, 산운학술문화재단, 109쪽 ; 1999. 「京畿南部와 忠淸地域의 高句麗 城」 『高句麗研究』8(高句麗山城研究), 고구려연구회, 295~296쪽 ; 임기환, 2007.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원, 9쪽. 정영호의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故地를 바탕으로 음성 망이산성·청주 낭비성·비중리 불상, 『삼국사기』의 554년 熊川城 전투, 그리고 부강지역의 연개소문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금강유역 고구려

어지는 미호천 중상류 지역으로 본 바 있다.²³⁾ 아무튼 신라는 문의 지역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살수지원 전투의 패전으로 미호천 중상류역으로부터 후퇴하고 말았다.

그런데 청주는 알려진 것과 달리 옛 지명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청주는 서원소경 설치로 비로소 군현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정도이다.²⁴⁾ 낭비성·낭자곡은 위치 비정에 논란이 있고, 물론 백제 상당현조차 고려 이후의 지명이다. 실제 940년(태조 23) 군현명 개편 이전에는 靑州(『삼국사기』 궁예전), 혹은 淸川(견훤전)이었다. 너른 살수지원에 서원소경이 설치되면서 외곽 일단에 옛 지명의 자취가 남은 것은 아닐까 한다.

이후 전투 기록에 청주 인근 지명으로 비정되고 있는 것은 550년 道薩城과 金峴城이다.²⁵⁾ 도살성은 천안,²⁶⁾ 목천 토성,²⁷⁾ 증평 이성(추성)산성²⁸⁾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곳 중 삼국의 국경이 잇닿은 이성산성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²⁹⁾ 도살성은 649년(진덕왕 3) 다시 등장한다.³⁰⁾ 이곳에서 김유신은 백제군의 기습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

군의 남하 사실을 추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부강의 개소문성을 고구려 성으로 보았다. 반면 이병도와 임기환은 별다른 설명 없이 살수지원을 청주로 비정하였다.

23) 강민식, 2013.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軍史』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7쪽.

24)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41, 호서사학회, 9~10쪽 ; 朱甫喲,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新羅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학회, 40쪽.

25) 十一年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飡異斯夫 出兵擊之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戌之(『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6) 李丙燾, 1983.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87쪽. 천안의 古號인 東西兜率과 道薩이 음사하다고 한다.

27) 成周鐸, 1990. 「百濟末期 國境線에 대한 考察」 『백제연구』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8) 閔德植,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사학연구』36, 47쪽 ; 양기석, 1999.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34쪽.

29)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50쪽.

30) 三年 秋八月 百濟將軍殷相 率衆來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太將軍庾信將軍陳

살성은 550년 이후 적어도 이때까지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곳이다. 한편 금현성은 세종 金城山 또는 金伊城을 본³¹⁾ 이래 거의 이견이 없다.

도살성과 금현성으로 이어지는 미호천 측은 이때부터 신라의 영역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그보다 앞선 때에 청주가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³³⁾ 두 성을 둘러싼 전투 상황을 보면 미호천 일대에서 삼국이 충돌하는 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이때 신라가 차지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는 신라 서북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³⁴⁾ 하지만 거듭된 공략에도 신라군이 막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관산성 전투로 획득한 지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557년(진흥왕 18) 사벌주를 폐하고 甘文州(김천 개령)를 설치한 것이나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령에서 추풍령으로 주력을 옮긴 것이며, 북쪽으로는 더 나아가는 조치였다. 추풍령에서 백제군을 상대하고 북한산주를 중심으로 고구려군을 막아내려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청주-보은-상주 노선은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94년 살수지원 전투에서 패전하였지만 550년 다시 준령을 넘어 미호천 유역을 경유하여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신라의 청주 진출 시기를 늦추어보는 견해가 있다. 649년 도살성 전투 이후 비로소 신라군이 청주에 진출했다고 보거나³⁵⁾ 백제 멸망 이후로 보기도 한다.³⁶⁾ 그러나 이미 550년 도살성과 금현성을 차지하였다면

春竹旨天存等 出相之轉關 經句不解 進屯於道薩城下(『삼국사기』 권5, 신라 본기5, 진덕왕).

31) 李丙燾, 1983. 『國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87쪽.

32) 閔德植,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사학연구』36, 47쪽.

33) 양기석, 1999.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38쪽.

34) 위덕왕 8년(561)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 변경을 쳐서 약탈하였다. 신라군이 나와 쳐 이기니 죽은 자가 1천여 명이었다. 위덕왕 24년(577) 겨울 10월 신라의 서쪽 변방 州·郡을 치자 신라 伊滄 世宗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를 쳐서 깨뜨렸다(『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35)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53~64쪽.

36)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對한 考察」 『호서사학』

그 사이의 청주도 자연 신라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649년 도살성 전투 이전 백제의 거듭된 공격에 시달리고 있던 정황을 보면 청주와 금현성을 일시 상실했을 수도 있다. 차라리 신라가 550년 청주를 차지한 후 649년 이전 다시 빼앗겨 도살성까지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전자의 경우 부모산성에서 출토되는 인각와의 공급시기와 이후 백제 멸망 때까지 영유해야한다는 인식, 후자는 『삼국사기』素那 열전과 지리의 ‘本’소속국에 얽매인 이해 같다.

오히려 550년 청주를 차지한 신라가 부모산성을 석축으로 다시 쌓고, 649년 이전 다시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인각와가 부모산성에 남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니면 655년(무열왕 2) 고구려·백제·말갈이 연합하여 차지한 신라 북변 33성 중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래의 소속국을 따르다면 백제와 고구려 군현에 둘러싸인 청주의 신라가 그것을 넘어 직산에 경계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신라의 청주 지배가 불안정하였을지는 몰라도 지배 자체를 늦추어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550년 청주를 차지한 신라군의 거점 산성은 어디였을까. 청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 산성은 부모산성이다. 이곳은 발굴조사를 통해³⁷⁾ 백제 한성기에 처음 쌓아 6세기 후반경 신라가 석축으로 다시 쌓았다고 한다.³⁸⁾ 실제 부모산성은 같은 크기의 충주 남산성과 달리 견고한 보축성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공방전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한다. 550년 청주지역을 차지한 신라의 거점 산성은 부모산성이었다.

2. 서원소경 설치 배경

5소경에 앞서 신라는 514년 阿尸村소경을 시작으로 國原소경과 北소경

41, 호서사학회, 11~12쪽. 두 성을 청주 인근으로 보지 않고 청주는 일종의 점이지대라는 주장이다.

3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淸州 父母山城』 I, 청주시.

38) 박중균, 2013. 「父母山城 出土 土器의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126~128쪽.

을 설치하였다. 아시촌소경과 북소경은 이후 폐지되고 국원소경만 남아 후에 설치된 네 소경과 함께 170년 만에 5소경 체제를 갖추었다.

15년(514) 봄 정월 阿尸村에 소경을 두었다[置]. 가을 7월에 6부와 남쪽 땅 사람들을 옮겨서 그곳을 채웠다[充實].(『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8년(557)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爲]. 沙伐州를 폐하고 甘文州를 설치하여 沙漭 起宗을 軍主로 삼았으며,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같은 책, 진흥왕)

8년(639) 봄 2월 何瑟羅州를 북소경으로 삼고[爲], 사찬 眞珠에게 명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鎮].(『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5년(658) 3월 왕이 하슬라의 땅이 靺鞨과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기고 경을 폐지하여 州로 삼고 都督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悉直을 北鎮으로 삼았다.(같은 책, 태종무열왕)

18년(678) 봄 정월 북원소경을 두고[置] 大阿漭 吳起로 지키게 하였다[守].

20년(680) 加耶郡에 금관소경을 두었다[置].(『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5년(685) 봄에 다시 完山州를 설치하고 龍九을 총관으로 삼았다. 居列州를 빼고[挺] 菁州를 두니 비로소 9州를 갖췄다. 청주에는 大阿漭 福世를 총관으로 삼았다. 3월에 서원소경을 두고[置] 阿漭 元泰를 仕臣으로 삼았다. 남원소경을 두고 각 州郡의 백성들을 옮겨 나누어 살게 하였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아시촌소경은 514년(지증왕 15) 설치하여 6부와 남쪽 지방 사람들을 옮겨살게 하였다.³⁹⁾ 아시촌소경은 지금 의성군 안계면 일대로 보고 있는데, 이곳은 경북 북부지역은 물론 화령·계림령·죽령을 통해 백두대간 이북 지역까지 통할 수 있는 요충이다.⁴⁰⁾

39)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九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5년).

40) 全德在,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아시촌소경은 557년(진흥왕 18) 국원소경을 설치하며⁴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⁴²⁾ 국원소경 설치 이듬해 이곳에 貴戚子弟와 6부 豪民을 옮겨 살게 하였다.⁴³⁾ 이때 아시촌소경의 6부민은 국원소경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⁴⁾ 국원소경의 설치는 같은 해 州의 치폐⁴⁵⁾에 보이듯 영역 확대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다면 새로이 설치된 북한산주가 고구려와의 전투를 담당하고, 국원소경은 백두대간 바깥에 배후 거점을 마련하였다. 아시촌소경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귀족의 자제와 6부 호민을 옮긴 것이다. 한편 673년(문무왕 13) 쌓은 국원성⁴⁶⁾은 당초 국원소경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는 단서이다. 국원소경 설치 후 120년 가까운 때에 소경성을 쌓은 것은 이 소경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唐과 직접 대결하는 상황에서 소경민의 안위를 담보할 만한 대규모의 산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639년(선덕왕 8) 하슬라(강릉)에 북소경을 설치하였으니⁴⁷⁾ 이곳이 靺鞨과 접해 있어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없다 하여 658년(태종무열왕 5) 폐지하였다.⁴⁸⁾ 동해안로를 통한 고구려 혹은 말갈의 공격으로부터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자 결국 폐지하고 군사적 성격이 강한 州로 재편한 것이다.

북소경의 역할을 대신하여 북원소경(678)을 설치한 듯하다. 이 소경은 토착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교통로상에 설치하였다고 한다.⁴⁹⁾ 북원소경이 속한 朔州는 북으로 동해에 접한 덕원과 안변으로 연

36~37쪽.

41) 以國原爲小京(앞 책, 진흥왕 18년).

42) 張俊植, 1998. 『新羅中原京研究』, 학연문화사, 124쪽.

43) 春二月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以實國原(앞 책, 진흥왕 19년).

44) 全德在,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39쪽.

45) 廢沙伐州置甘文州 以沙浪起宗爲軍主 廢新州置北漢山州(앞 책, 진흥왕 18년).

46) 13년(673) 9월 국원성[옛날 靺長城이다]…을 쌓았다(『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문무왕 때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592步였다(『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漢州 중원경).

47)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浪眞珠鎮之(『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8년).

48) 王以何瑟羅地連靺鞨 人不能安 罷京爲州 置都督以鎮之 又以悉直爲北鎮(앞 책, 태종무열왕 5년).

결되어 있다. 북소경이 溟州 방면으로의 교통로를 의식한 것이라면 고구려를 멸하고 당마저 물리친 후 보다 안정적인 고구려 고지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원소경이 한강 하류로의 접근을 염두에 둔다면 북원경은 백두대간 서쪽을 따라 북상하는 루트에 해당한다.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북소경과 북원소경을 ‘지키게 하였다[鎮·守]’는 기록이 눈에 띈다. 백두대간 서쪽 정선·평탄·영월 지역이 명주에 속한 것도 의아하다. 원래 명주 지역은 북소경 치책 과정에서 보이듯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이어진 곳이다. 아마도 서쪽까지 확대된 명주의 영역은 동해안로가 고립·차단되었을 때 죽령을 넘어 영춘·영월-정선에서 강릉으로 우회하던 흔적 같다. 따라서 북소경에서 북원소경으로의 전환은 고구려-말갈의 위협이 제거된 상태에서 북방 내륙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 또한 갈등이 거듭된 한강 하류역이나 동해안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곳에 사주와 북원소경을 설치하여 고구려의 남하로를 역으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80년 설치한 금관소경은 방위명을 갖는 다른 소경에 비해 옛 가야의 국명을 유지하였다. 금관소경은 옛 가야지역을 아우르고 남해안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미 532년 투항 당시 구해왕의 식읍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때에 이르러 김무력-서현-유신으로 이어진 신김씨세력이 삼국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소경을 설치한 것이다.⁵⁰⁾

청주는 백제 말기 北方 웅진성 관할이었고, 9주 중 웅주 소속이었다.⁵¹⁾ 이미 소경의 다양한 속성 중 왕경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옛 가야와 고구려·백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⁵²⁾ 그런 점에서 함께 설치된 남원소경도 옛 백제지역을 의식한 조

49) 이재환, 2012. 「統一新羅時代 北原小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313~314쪽.

50)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89쪽.

51)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56쪽.

52)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86~98쪽.

쳐였을 것이다. 무왕과 의자왕대 남원-함양 방향의 공방은 신라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으니 남원지역을 소경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원은 전주와 무주를 아울러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한편 서원소경은 백제의 옛 수도인 웅진과 사비를 의식한 결과로 보았다. 상주-보은-청주를 거쳐 웅주에 접근할 수 있지만, 웅주 내에서 서원소경이 북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이것은 상주에서 唐恩浦로 가는 사신로의 거점이었다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⁵³⁾ 역시 교통로상의 거점이라는 데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 북쪽으로 국원소경을 경유하고 남한강을 따라가다 서쪽으로 직행하는 노선도 있다. 그러나 수로와 육로가 반복되는 국원소경 루트보다는 육로로 연결된 서원소경 노선이 더 가깝고 안정적이었다. 실제 661년 9월 백제부흥군이 熊津道를 막자 甕山城과 雨述城을 공략하는 기사가 보인다. 우술성과 웅산성은 계족산성과 그 부근으로 볼 수 있어,⁵⁴⁾ 백제부흥기에도 이곳 노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표 1. 신라의 5소경

명칭	소재지	소경 설치시기	소경성 축조시기	소경성 규모	경덕왕대
國原小京	충북 충주	眞興王 18년(557)	文武王 13년(673)	2,592步	중원경
北原小京	강원 원주	文武王 18년(678)	神文王 5년(685)	1,031步	북원경
金官小京	경남 김해	文武王 20년(680)	-	-	金海京
西原小京	충북 청주	神文王 5년(685)	神文王 9년(689)	-	서원경
南原小京	전남 남원	神文王 5년(685)	神文王 11년(691)	-	남원경

685년 서원·남원소경의 설치와 함께 언급된 바와 같이 9주 5소경 체제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이듬해 686년 사비주를 웅천주로, 발라주를 무

53)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 41, 호서사학회, 14~16쪽.

54) 노중국, 2003.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30쪽.

진주로, 684년 일선주를 폐하고 사벌주를 두며 실질적인 9주 체제를 마무리하였다.⁵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촌소경과 국원소경은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영역화에 따른 조치였다. 북소경과 북원소경은 군사적인 배경이 없지 않았다. 고구려·말갈의 위협이 상존한 상태에서 북소경의 유지기간이 길지 않았고, 삼국통합 이후에 비로소 백두대간 서쪽을 행정단위로 편입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원소경을 지킨다[守]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금관소경은 병합 직후부터 신김씨의 식읍으로부터 출발하여 삼국통합의 공에 따라 소경으로 승격한 것이다.

금관소경을 제외한 앞선 소경들이 상당히 역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서원·남원소경은 삼국통합과 대당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5소경 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이곳 또한 교통로상의 거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서원소경의 경우 대당 교섭로라는 차별성이 강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원소경과 함께 역사적 경험의 이곳을 중시하게 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5소경의 설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설치 이후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다뤘지만 주로 설치 배경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측하자면 757년(경덕왕 16) 9주의 명칭과 군현체제를 정비한 때부터 실질적인 경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한다.

Ⅲ. 서원경의 치소와 구조

1. 서원경의 치소

청주지역이 다시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685년 서원소경의 설치이다. 가장 늦게 설치된 서원소경은 689년 서원경성을 쌓고,⁵⁶⁾ 757년(경덕왕

55) 6년(686) …泗泚州를 郡으로 삼았고 熊川郡을 주로 삼았다. 發羅州를 郡으로 삼고, 武珍郡을 주로 삼았다. 7년 3월 一善州를 폐하고 다시 沙伐州를 두어 파진찬 官長을 총관으로 삼았다. …가을 사벌주와 敵良州 두 주에 성을 쌓았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6) 서원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무튼 삼국통합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5소경 체제로의 개편은 서원·남원소경의 설치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서원소경이 설치된 시점에서 그 중심은 어디였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서원경의 치소를 찾기에 앞서 청주에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주목해 보자. 먼저 운천동신라사적비다. ‘壽拱二年歲次丙戌’ 기사에 따라 당 측천무후 垂拱 2년, 686년(신문왕 6)에 세운 것으로 본다. 건립 연대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서원소경 설치 이듬해 비가 발견된 부근에 사찰을 세운 것이다.⁵⁷⁾

다음으로 복대동 유적이다. 이 유적의 통일신라 유구는 건물지 2동을 비롯하여 주거지와 수혈, 구상 유구, 우물 등이다. 주조석과 적심을 갖춘 1호 건물지는 와적 기반을 사용하였고, 주건물지의 부속건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8엽 단판연화문 수막새는 고구려 계통으로 보고 있다. 토기는 인근 명암동·용암동 유적의 출토유물과 비슷한 7세기 중엽 이후 9세기 중엽 이전에 해당한다. 기와의 경우도 어골문에 비해 태선문의 비중(41.9%)이 높고, 와적 기반의 암키와는 모두 태선문 암키와이다.⁵⁸⁾ 따라서 1호 건물지의 경우 7세기 중엽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⁹⁾

비록 두 예에 불과하지만 평지에 조영된 사찰과 와적기단을 활용한 건물지는 서원경 치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사실 삼국통합

56) 秋閏九月二十六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王欲移都達句伐 未果(위 책, 신문왕 9년). 한편 仇近從元貞公 築西原述城(『삼국사기』 권47, 열전7, 裂起)이라 하여 달리 서원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대체로 서원경성과 서원술성은 같은 것을 이른다고 보고 있으나 이견도 있다.

57) 발견 당시의 연구성과를 제외하면 이후 거의 논고가 없다. 최근 비문의 특징을 새로이 밝혀내고 당대 인물인 사신 김원태와 서원술성을 쌓은 김원정을 통해 서원경의 위상을 밝힌 연구가 있다(신정훈, 2003. 「淸州 雲泉洞 新羅寺蹟碑 再檢討」 『백산학보』 65, 백산학회).

58)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청주 복대동유적』, 252~258쪽.

59) 청주 성화2지구 건물지도 관아건물로 보고 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淸州 聖化2地區 遺蹟』, 한국도지주택공사, 422쪽). 그러나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城’자명 기와를 반드시 관아건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직후의 분위기에서는 산성에 치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그런데 평지에서 불사가 이루어지고, 규모 있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북대동유적의 건물지를 곧바로 서원경 仕臣이 머물렀을 정청 혹은 관아건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소경 치소를 곧바로 산성으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급박한 변란이 없는 한 평지의 치소 혹은 생활공간과 변란을 대비한 대규모 석축산성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평지 치소는 가까이에 입보가 가능한 부모산성을 옆두에 둔다면 북대동유적의 건물지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서원경 치소로 그간 주목해왔던 상당산성은 서원경 관내 인적 자원이 모두 입보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산성으로 구별된다.

지금까지 서원경 치소는 청주지역의 산성에서 찾아왔다. 서원소경 설치 이후 이곳에는 두 건의 축성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서원경성과 열진의 서원술성이 그것이다. 서원경성과 서원술성을 같은 것으로 본⁶⁰⁾ 반면 이를 달리 보기도 한다.⁶¹⁾ 후자는 서원술성을 673년 이후에 쌓은 상당산성으로, 689년의 서원경성은 와우산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사이에 거대한 산성을 그것도 석축과 토축이라는 다른 축성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한편 신라는 서원·남원소경이 설치되던 해에 북원경성을 쌓았다.⁶²⁾ 북원소경성은 鵠原山城으로, 둘레 1,031步(≒1,856m)에 가장 부합하는 산성이라 한다.⁶³⁾ 그러나 영원산성은 해발 970m 봉우리에서 좌우 능선을 따라 쌓은 둘레 2.4km의 포곡식 산성으로 크기에 차이를 보인다. 차라리 영원산성 남서쪽 해발 500~627m의 봉우리를 감싼 金臺山城(해미산성)이 더 유력해 보인다. 국도 5번이 내려다보이는 요지에, 둘레 1,860m의 포곡

60) 車勇杰, 「우암산의 성터」 『우암산 그 역사의 숨결』, 청주문화원, 45~46쪽.

61) 노병식, 2014.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문물연구』2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95~98쪽.

62) 신문왕 5년(685)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031步였다(『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朔州 북원경).

63) 이재환, 2012. 「統一新羅時代 北原小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319쪽.

식 산성이다. 방형 또는 장방형의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였고, 선문 계통의 기와가 다수 수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복원소경도 평지 치소와 대규모 산성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소경을 설치한 남원의 경우도 비교해볼 수 있다. 이곳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거의 없다시피한 한계가 있지만, 남원소경성⁶⁴⁾은 네모꼴의 ‘井田遺基’로 알려진 남원읍성⁶⁵⁾과 북쪽 교룡산성이 삼국통합 이후의 성곽으로 볼 수 있다. 정전을 구획하였다고 하는 유인케는 실제 帶方州의 자사나 도독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東京雜記』에도 동일한 시가구획이 보여,⁶⁶⁾ 일단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보고 있다.⁶⁷⁾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산봉우리와 주위 산자락을 두른 둘레 3,120m의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아직까지 남성읍성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없었지만 일단 평지 치소와 대규모 산성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685년에 쌓은 서원경성, 혹은 서원술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상당산성이다. 먼저 산성의 축조방식이나 출토유물이 이 시기와 가장 근접한다. 특히 서북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곳 성벽의 차이점을 밝혀냈다. 우선 기초 부분은 적심공법으로 다지고 그 위에 거칠게 다듬은 기단석을 놓고 그 위 성벽을 안쪽으로 들여쌓기를 하였다. 이때 기단석 윗부분까지를 흙으로 덮어 다졌는데, 이러한 축조방법은 곡려 내성 북벽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성돌도 아래쪽은 큰 돌을 사용하였으나 그 위는 같은 크기로 잘 다듬어 쌓았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상당히 고식으로 문헌의 축성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⁶⁸⁾

따라서 상당산성은 서원술성 여부를 떠나 적어도 7세기 후반대에서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성 내 치소로 볼 수 있는 운

64) 11년(671) 南原城을 쌓았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65) 劉仁軌城[即今府治所 周回數里 有舊基...] 井田遺基[唐劉仁軌爲刺史兼都督 邑內里廩 取法井田 畫爲九區 至今遺址尙存](『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남원도호부, 고적.)

66) 井田 新羅時 井田遺基 尙存(『동경잡기』 권2, 고적).

67)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の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60~61쪽.

68) 노병식, 2014.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문물연구』2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90~91쪽.

주현 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곧 명문와가 출토되는 중·하층의 중심연대를 9세기로 본다면⁶⁹⁾ 160년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소경 치소를 무조건 성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 6세기 중엽 청주지역에 진출한 후 서원소경 설치까지는 1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 신라의 주된 관심사는 삼국전쟁과 이후 전개된 대당전쟁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청주 진출과 서원소경 설치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신라가 이곳을 비워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 문의 미천리고분군이 6세기대를 중심으로 하고, 청주지역은 7세기 중엽을 편년으로 하는 토기가 부장된⁷⁰⁾ 신라 석곽묘가 조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청주지역에서 6세기 중엽 백제 고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때로부터 1세기 가까이가 공백인 셈이다.

2. 서원경의 구조

서원경의 구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상당산성 출토 ‘사랑부’명기와와편이다.⁷¹⁾ 이미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도 언급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산성 남문 앞에서 수습되고 있다.⁷²⁾

한편 ‘사랑부’명기와편은 광주 武珍古城 B지역 상층건물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보고자는 동반하는 청자를 통해 이 층위를 9세기 후반~말로 보고 있다.⁷³⁾ 이들 기와는 무진고성의 수축 시기에 사용된 것들이다. 따라서 ‘사랑부’명기와와 함께 수습된 ‘官’·‘城’·‘國城’ 등 명문의 사용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산성의 초축과 수축이 같은 집단에 의해 이루

69)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清州 上黨山城-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청주시, 500쪽.

70) 성재현, 2002. 「清州地域 出土 新羅土器의 編年과 性格」 『호서고고학』 6·7, 호서고고학회, 317~3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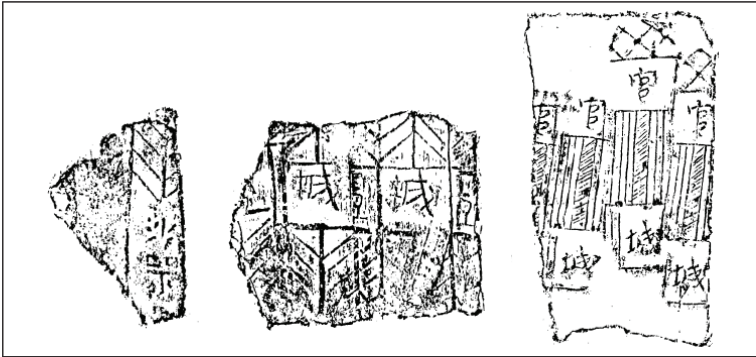
71) 명문 해독에 차이가 있다. 기록상의 沙梁部와 달리 명문은 嚙자로, 喙 또는 啄으로 쓴다. 여기서는 梁으로 읽었다.

72) 李在俊, 1981. 「沙喙部 銘 平瓦에 對한 小考」 『서원학보』2, 서원학회, 80~83쪽.

73)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武珍古城』Ⅱ, 광주직할시, 160~161쪽.

어졌다는 ‘통일신라와 직결되지 않은 동시기 타 집단과의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한다. 반면 각기 다른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통일신라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배세력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 한다.⁷⁴⁾

표 2. 무진고성 B지역 상층건물지 출토 암각새⁷⁵⁾



판단을 보류하였지만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유효한 것이라 생각한다. 상당산성에서 수습된 ‘사랑부’명 기와의 의미도 중앙에서 部名이 폐기된 시점에서 다시 부활한 셈이다. 소경 내에 6부를 둔 것으로 보기도 하지 만,⁷⁶⁾ 왕경에서 사민된 귀족이 원래 소속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⁷⁷⁾ 토착민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部名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소경 혹은 州治 내에서 여러 部名이 발견되지 않는

74) 위 책, 162~163쪽.

75) 전남대학교박물관, 1989. 『武珍古城』 I, 광주직할시 : 1990. 『武珍古城』 II 재인용.

76)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4~25쪽 ; 전덕재,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41~46쪽 :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41, 호서사학회, 21쪽.

77) 徐榮一, 1999. 「安城 飛鳳山城 수습 「本彼」銘 기와 考察」 『문화사학』11·12·13, 한국문화사학회, 498쪽. 다만 안성(白城郡) 비봉산성을 쌓은 ‘본피부’ 집단을 중원소경에서 사민된 것으로 보는 것(499쪽)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상⁷⁸⁾ 이것을 소경 내 6부 설치로 연관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와편에 보이는 사랑부가 공식적인 행정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⁷⁹⁾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⁸⁰⁾

다음으로 서원경의 경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자료는 ‘城’·‘官’명 기와이다. 지금까지 청주 권역에서는 모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크게 상당산성과 청주읍성 부근, 그리고 외곽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상당산성 내 운주현 터 중·하층에서 모두 384점의 ‘城’·‘城草’명 기와를 수습하였다. 명문와는 어골문 바탕에 방곽의 유무에 따라 여러 서체로 대략 세 종류이다.⁸¹⁾

청주시 서문동 마야복합상영관 부지 내에서 발견된 성안유적은 고려시대 이후 건물지와 도로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최하층 도로유구 안팎에서 ‘太平’·‘城’명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유적에서도 ‘城’·‘官’명 기와편이 출토되었다.⁸²⁾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우물과 수혈유구를 제외하면 기와 관련 유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청주 읍성 동쪽 당산으로 연결된 지역에서 고려 이전 유적이 확인되었다.⁸³⁾ 도심 지역이라 유구의 훼손이 심해 정연한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

78)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경주를 제외하면 문헌기록의 ‘中原京沙梁人’ 강수와 안성 비봉산성의 ‘本彼’ 그리고 광주 무진고성의 ‘沙梁’·‘梁’에 불과하다.

79)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 41, 호서사학회, 28쪽. 다만 전덕재는 소경 내에 6부가 존재했다고 본다.

80) 신김씨인 김유신 가문의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노병식, 2014.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문물연구』 2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85쪽).

81) (재)충원문화재연구원, 2013. 『淸州 上黨山城-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청주시, 4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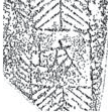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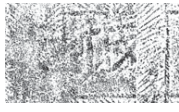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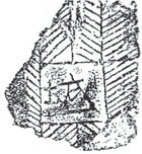
82)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유적』, (주)에이치디엠. 가까운 우리은행 부지 발굴조사에서는 고려 이후의 우물 2기와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다. 특히 보상화문수막새편과 포도연화문암막새편, 남석제기편, 토기완 등은 이곳에 사찰이나 관청 등 주요 건물이 위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청주읍성 내 우리은행부지 유적』, (주)동양종합건설).

83)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5. 『청주 문화동 50-2번지 일원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지만 통일신라 토기와 ‘城’·‘官’명 기와를 수습할 수 있었다. 상층 고려 이후의 석축 유구는 함께 발견된 청동유물을 통해 사찰터가 아닌가 본다.

상당산성과 청주읍성 주변 바깥에서도 ‘城’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다.⁸⁴⁾ 청주 성화2지구 유적의 집터는 초석과 적심석 일부가 확인되었고 토기와 청자편, 그리고 명문와를 포함한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표 3. 청주지역 출토 ‘城’자명 기와 자료⁸⁵⁾

			
청주 상당산성 운주현지	청주 상당산성 운주현지	청주 학천리유적	청주 상당산성 운주현지
			
청주 윤천동 사지	청주 서문동 성안유적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청주 성화2지구 유적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 부지에서는 ‘城’자명 기와와 함께 ‘大中三年’명 기와가 함께 출토되었다. ‘대중3년’은 849년(문성왕 11)으로 ‘城’자명 기와의 유행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또 ‘대중3명’명 기와는 흥덕사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사찰 창건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주읍성 안팎 유적에서 확인된 ‘官’자명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유적의 경우 경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성이나 사

84)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청주 성화2지구 유적』, 한국토지주택공사, 419~422쪽.

85)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淸州 上黨山城-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청주시, 500쪽 재인용.

지에서 수습되고 있다.⁸⁶⁾

표 4. 청주지역 출토 ‘城’자명 기와 자료⁸⁷⁾

	
청주 흥덕사지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서원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신라촌락문서가 있다. 이 촌락문서를 통해 서원경의 경계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 참전한 佐知村 출신 삼년산군 高干 都刀(苦都)가 있다.⁸⁸⁾ 이 좌지촌이 沙害漸村과 薩下知村과 음사하다고 보아 두 촌락 앞에 관명된 當縣을 삼년산군 薩買縣으로 본 견해가 있다.⁸⁹⁾ 이후 문서 작성의 주체를 熊州로 보아 관할 領縣에서 찾거나, ‘서원경○○촌’을 椒子村으로 읽어 초정으로 비정하였다. ‘서원경○椒子村’을 수용하고 나아가 군현의 영속관계와 명칭과 지형을 고려하여 연기군(세종시) 남면과 전의면 일대로 추정하였다.⁹⁰⁾ 한편 ‘서원경○○촌’은 청주 관내로 보고, 다른 세 촌은 웅주의 영현인 淸音縣으로 보기도 한다.⁹¹⁾

86) 都文善, 2008. 「清原 雙清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弗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50, 273~274쪽.

8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清州 上黨山城-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청주시, 500쪽 재인용.

88) 『日本書紀』 欽明 15년(554), 冬十二月.

89) 野村忠夫, 1953. 「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62-4, 60쪽.

90) 이상 촌락문서에 나타난 村의 비정은 李仁哲, 1993. 「新羅帳籍에 보이는 村의 形態와 性格」 『선사와 고대』5, 한국고대학회, 149~153쪽을 참조하였다.

91) 이우태, 2001.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촌락의 위치와 성격」 『신라 서원

그러나 여전히 촌락문서의 작성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점이나, 촌락의 성격과 4개 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⁹²⁾ 등은 촌락 비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명의 유사한 예를 찾거나 지명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서원경○○촌’을 초정으로 본다면 丁女와 下下烟의 비중이 높아 다른 촌에 비해 가장 열악한 현상⁹³⁾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작성 시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촌락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와 달리 오송 쌍청리유적에서 발견된 ‘易吾加菴村主’명 기와편을 통해 촌락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다. 미호천 하류를 포함하여 ‘양오기불촌’의 경계로 이해하고, 쌍청리유적의 다중환호를 서원경의 외곽방어선으로 보았다.⁹⁴⁾ 나아가 서원경의 영역을 상당산성 사랑부명 기와편을 통해 천안 수신면 장산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⁹⁵⁾

물론 서원경 또는 縣은 여러 촌락으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조사성과에 따라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려 초 속군현⁹⁶⁾을 통해 서원경의 최대 영역을 추

소경 연구』, 서경, 235쪽.

92) 朱甫墩,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新羅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연구회, 38~39쪽.

93) 김기섭, 2002.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立地와 개간」 『역사와 경계』42, 부산경남사학회, 53~55쪽.

94) 都文善, 2008.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菴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50, 284쪽. 반면 9세기 말 촌주의 자구책이 아니었을까 한다. 실제 889년(진성왕 3) 사벌주에서 元宗과 哀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죽은 촌주 祐連을 주목할 수 있다. 왕이 보낸 진압군이 위세에 눌려 나아가지 못했을 때 힘껏 싸우다 죽어, 아들에게 촌주의 직을 물려주고 있다. 三年(889) 國內諸州郡 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所在盜賊蜂起 於是元宗哀奴等 據沙伐州叛 王命奈麻令奇捕捉 令奇望賊壘 畏不能進 村主祐連力戰死之 王下勅 斬令奇 祐連子年十餘歲 嗣爲村主(『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95) 都文善, 2008.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菴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50, 286쪽.

96) 屬郡二 縣七 領知事府一 知事郡二 縣令官二(『고려사』 지10 지리1, 청주목).

구분	本소속	경덕왕 改名	今名	來屬 시기
淸州牧	百濟 上黨縣	서원경	태조23년	

정해 보기로 한다. 고려 초 청주목 관할의 속군현은 모두 11곳이다. 그런데 이들 군현은 모두 고려 초 혹은 현종 9년 청주목에 來屬하였다. 서원경을 계승한 청주목의 경계가 고려 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의현과 문의현 바깥, 그리고 청안현 경계에 월경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들 현이 성립되는 고려 초 이전 서원경의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757년(경덕왕 16) 소경을 경으로 승격한 시기를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때의 개편은 주로 州를 중심으로 군현체제를 완비한 것이다. 漢式 지명으로의 전환은 물론 점차 안정된 통치체제를 갖춘 셈이다. 또 808년(애장왕 9) 12방면으로 사자를 보내 여러 군읍의 경계를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⁹⁷⁾ 일단 757년이나 808년,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에 이르는 시점에 소경을 포함한 군현 경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싶다.

다음 서원경의 방어체계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일단 상당산성을 서원경의 중심 방어시설로 보았다.

부모산성은 6세기 중엽 이후 청주를 차지한 신라에 의해 석축으로 개축한 곳으로 보았다. 서원소경 설치 시점부터 서원경성을 쌓는 4년 가까이 청주의 거점성으로 보기도 한다.⁹⁸⁾ 아무튼 백제가 처음 보루 크기의 작은 성을 쌓은 후 신라가 차지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석축했다고 한다. 이후 백제가 되찾아 인각와를 남기는 과정을 통해 적어도 백제-신라-백제-신라로 거듭 주인이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산성의 둘레는

木州	백제 大木嶽郡	大麓郡	至高麗	←
全義縣	백제 仇知縣	金池(大麓郡 領縣)	至高麗	←
(豐歲縣)	(백제 甘賈縣)	(馴雉縣)(大麓郡 領縣)	高麗初	顯宗9年(천안부)
鎭州	高句麗 今勿奴郡	黑壤郡	高麗初?	顯宗9年
道安縣	고구려 道西縣	都西(黑壤郡 영현)	高麗初	현종9년
(陰城縣)	(고구려 仍忽縣)	(陰城縣)(黑壤郡 영현)	←	至高麗
淸川縣	○○ 薩賈縣	.	至高麗	←
靑塘縣	.	.	高麗初	←
燕山郡	백제 一牟山郡	燕山郡	←	至高麗
燕岐縣	백제 豆仍只縣	燕岐縣(燕山郡 영현)	←	현종9년
懷仁縣	백제 未谷縣	昧谷(燕山郡 영현)	高麗初	현종9년

97) 發使十二道 分定諸郡邑疆境(『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9년).

98)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72쪽.

내측 기준으로 1,135m이다.

문의 양성산성은 해발 297m의 봉우리와 동향한 계곡을 끼고 쌓은 삼태기형 석축 산성이다. 주변에 둘레 240m의 북성과 260m의 남성 두 보루를 포함할 수 있다. 474년 신라가 쌓은 일모성으로 보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축성 기법을 확인하였으며, 성내에서 지름 23m의 원형 연못을 확인하였다. 이 연못은 3차에 걸쳐 개축, 사용하였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모두 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산성의 둘레는 바깥 기초를 기준으로 1,020~1,030m이다.⁹⁹⁾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성대리에 위치한 娘[琅]城山城은 둘레 575m의 석축 산성이다.¹⁰⁰⁾ 상당산성에서 발원한 한강 지류의 한 줄기가 미원천에 합류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 천변에 위치한다. 해발 346.4m 높이의 정상과 남쪽 경사를 에워싼 세모꼴의 테피식 산성이다. 성 안팎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선조문 기와가 대부분이며, 토기는 주로 삼국시대부터 인화문토기 등 통일신라에 해당한다.

謳羅山城은 해발 429m의 산줄기와 동쪽 계곡을 끼고 쌓은 네모꼴 둘레 872m의 석축산성이다.¹⁰¹⁾ 이곳은 낭성산성에서 북쪽으로 분수령인 한남금북정맥을 넘어 낭비성에 닿을 수 있다. 성벽은 북벽과 서벽에서 축조 기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 차례 이상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서 단각고배를 비롯하여 삼국~통일신라에 이르는 토기와 선조문이 시문된 기와류가 출토된다.

낭비성은 해발 255m의 산봉우리와 남쪽 계곡 상단을 감싼 삼태기 모양의 둘레 733m의 석축산성이다.¹⁰²⁾ 성내에서 6세기 후반대의 신라토기편과 통일신라 때의 기와편, 고려 이후의 토기·청자편도 수습할 수 있다.

9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청원군.

10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8.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23~132쪽.

101)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2001. 『淸原 謳羅山城』, 청원군.

10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5. 『淸原 狼臂城 地表調査 報告書』, 청원군.

표 5. 상당산성과 인근 신라 석축 산성

명칭	형식	해발고도 (m)	둘레	상당산성과의 방향/거리	특징
상당산성	포곡식	491	4.2km	-	古 성벽과 西門 조선 후기 개축
부모산성	삼태기형	232	1,135m	西/12km	圓池
양성산성	삼태기형	297	1,020~1,030m	南/17.5km	지름 23m 圓池
남성산성	삼태기형	346	575m	南東/12.5km	지표
구라산성	삼태기형	493	872m	北東/8km	지표
남비성	삼태기형	255	733m	北/10km	지표

이와 같이 청주지역에는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신라계 석축 산성이 다수 분포한다.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시야가 확보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성된 부모산성과 양성산성을 포함하여 사방에 산성을 거느리고 있는 형국이다.¹⁰³⁾

IV. 서원경의 쇠퇴

소경의 설치 목적이 옛 고구려·백제·가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교통로 상의 거점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5소경이 완비된 후 실제 소경의 두드러진 역할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미 통일기에 이르러 새로이 편제된 소경은 州 都督의 통제를 받는 위치였으니 상대적으로 소경의 위상은 낮아졌다.¹⁰⁴⁾

그러나 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서원경이 서원부로 불린 사실은 소경을 더 중시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¹⁰⁵⁾ 그러나 신라 왕실이 소경을 부로

103) 북쪽 21km 지점 해발 457.2m 높이의 동림산에는 둘레 954.6m의 석축 산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사모봉형이나 서북쪽으로 길게 연장된 성벽을 가지고 있다. 서북쪽 380m 거리에는 둘레 364m의 보루가 한 곳 있다. 동림산성을 따라 서쪽으로 뻗은 능선상에는 망경산성과 운주산성 등이 있어 남북 교통로상의 요충이다. 강민식·조록주, 2013. 「청주 동림산성과 보루」 『중원문화연구』2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04)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209, 역사학회, 26쪽.

105) 위 글, 26~27쪽.

개편한 것이 아니라 소경 스스로 부라 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⁶⁾ 아무튼 9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신라 하대 서원경의 정황을 살펴볼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하다.

6년(770) 봄 정월 왕이 西原京에 거둥하였다. 지나는 주·현의 죄수들을 정상에 따라 사면하였다. 여름 4월 왕이 서원경으로부터 돌아왔다.(『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혜공왕)

14년(822) 3월 웅천주 도독 憲昌이 그의 아버지 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長安이라 하였다. 연호를 세위 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완산주·청주·사별주의 네 주 도독과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의 사신과 여러 군현의 수령을 위협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으려 하였다.…한산주·우두주·삼랑주·패강진·北原京 등은 헌창의 반역 음모를 알고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지켰다. …삼년산성을 쳐서 이기고 속리산으로 진군하여 적병을 공격하여 섬멸시켰으며, …헌창은 겨우 몸을 피하여 성에 들어가 굳게 지키고 있었다. …헌창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죽으니….

15년(823) 봄 정월 5일 서원경에서 벌레가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9일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종류의 벌레가 눈을 무릅쓰고서 기어다니다가 햇빛을 보자 그쳤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4년(900) 겨울 10월 국원·靑州·槐壤의 적수 淸吉과 莘萱 등이 성을 바쳐 궁예에게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惠恭王(765~779)은 770년 정월 서원경을 순행하여 4월까지 머물렀다. 즉위 직후부터 천재지변과 반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4개월 가까이 왕궁을 비우고 서원경에 머무른 것이다. 결국 780년 이찬 金志貞

106) 위 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924년, 김해부)나 寶林寺北塔誌(870년, 西原部)나 興德寺禁口(고려 중기, 西原府)는 모두 사찰 관련 금석문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9산선문이다. 따라서 대당 유학승이 중심이 된 선종계 사찰에서 당의 지방통치체제를 본따 부른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반란을 일으켜 왕과 왕비를 살해하고 왕위는 반란을 진압한 金良相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왕위는 나물왕계로 옮겨갔으며,¹⁰⁷⁾ 실질적인 신라 중대의 종말이었다.

이때 혜공왕에 대해 ‘장성하자 음악과 여자에 빠져 나돌아 다니며’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왕위 찬탈에 따른 명분을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천재지변과 함께 왕의 외유를 언급한 점이 특이하다. 혜공왕의 외유는 소략하지만 본기 속에는 서원경 거동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혜공왕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나아가 지지 기반은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청주 안심사는 775년 진표가 제자들과 함께 세운 곳이고, 보살사도 778년 진표가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보은 범주사는 776년 진표의 제자 영심이 중창한 곳이니¹⁰⁸⁾ 청주와 보은지역은 진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역측하자면 청주·보은 일대에 머물던 진표를 만나기 위해 혜공왕이 서원경에 행차한 것이 아닌가 한다.

元聖王(785~798) 후 다시 등장한 내물왕계는 무열왕계를 무너뜨리고 왕좌를 차지하였으나 거둬들인 왕위찬탈과 지방통제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哀莊王(800~808)은 새로운 통치체제로 개편하였으나,¹⁰⁹⁾ 결국 822년(헌덕왕 14) 김헌창의 반란 이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¹¹⁰⁾

그런데 김헌창이 속리산으로 피신하면서 반란 거점의 하나였던 서원경도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실제 반란에 가담한 지역은 모두 그의 근무했거나 연고가 있었을 것이다.¹¹¹⁾ 그러나 반란이 진압된 이듬해 정월 5일

107) 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奈勿王十世孫也(『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宣德王 즉위조).

108) 復與弥勒眞柱九者八者 誠曰 九者法尔 八者新熏成佛種子 我已付囑汝等 持此還歸俗離山 山有吉祥草生處於此創立精舍 依此教法廣度人天 流布後世 永深等奉教直往俗離 尋吉祥草生處創寺名曰吉祥 永深於此始設占察法會(『삼국유사』 권4, 關東楓岳鉢淵藏石記).

109) 金甲童, 1994. 「新羅·高麗의 王朝交替와 郡縣制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7, 한국고대사연구회, 182쪽.

110)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역사학회, 28쪽.

111) 김헌창의 아버지 金周元은 785년 선덕왕 사후 불어난 關川을 건너지

서원경에 별레가 떨어지고, 9일 세 종류의 별레가 눈을 무릅쓰고 나다녔다고 한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날짜까지 명시한 것을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반란에 따른 가혹한 숙청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3년명 기와와 함께 ‘城’·‘官’명 기와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김헌창의 난 이후 900년 궁예의 수중에 들어갈 때까지 새로운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혹 무진고성과 상당산성에서 수습된 ‘사랑부’명 기와는 반란 거점이라는 혐의를 벗고 신라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려던 시도가 아닐까 한다.

V. 맺음말

서원소경 설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494년 처음 청주지역 진출에 실패한 신라군은 이후 550년 도살성과 금현성을 공취하면서 청주에 이를 수 있었다.

685년 청주에 서원소경을 설치하면서 다시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소경은 각 소경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설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서원소경은 옛 백제지역을 통제, 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북쪽으로는 교통로상에 위치하였다. 또한 백제부흥운동에서 웅진도를 연결하던 요충으로 볼 수도 있다.

685년 서원소경 설치 이후 그 치소를 평지와 산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전란이 끝난 시점에 대규모의 산성을 쌓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사례에 비추어 대규모의 입보용 산성과 평지 치소로 나누어 보았다. 상당산성과 짝하여 평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건물지와 명문와 등은 당시 서원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당산성 주변의 산성은 일정한 거리와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다수 분포한다. 이들 산성은 서원경의 외연에 자리 잡아 서원경의 외

못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807년(애장왕 8) 이찬으로 시중에 오르고, 813년(헌덕왕 5) 무진주 도독, 이듬해 다시 시중, 816년 청주 도독, 821년 웅천주 도독을 지냈다.

곽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았다.

소경은 완전한 의미의 지방제도로서의 의미보다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757년 9주의 명칭과 군현체제 정비 이후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논문접수 : 2017.10.20, 심사시작 : 2017.11.22, 심사완료 : 2017.11.30]

주제어 : 9주 5소경, 서원소경, 서원경, 서원경성, 서원술성

【參考文獻】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5. 『淸原 狼臂城 地表調査 報告書』, 청원군.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청주 성화2지구 유적』,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淸州 上黨山城-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청주시.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유적』, (주)에이치디엠.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5. 『청주 문화동 50-2번지 일원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청주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부지내 청주 복대동유적』.
- 전남대학교박물관, 1989. 『武珍古城』Ⅰ, 광주직할시.
-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武珍古城』Ⅱ, 광주직할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8. 『報恩 味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보은군.
-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2001. 『淸原 謳羅山城』, 청원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청원군.
- 金甲童, 1994. 「新羅·高麗의 王朝交替와 郡縣制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7, 한국고대사연구회.
- 김기섭, 2002.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立地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부산경남사학회.
-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82, 백산학회.
- 노병식, 2014.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문물연구』2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박중균, 2013. 「父母山城 出土 土器의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徐榮一, 1999. 「安城 飛鳳山城 수습 「本彼」銘 기와 考察」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성재현, 2002. 「淸州地域 出土 新羅土器의 編年과 性格」 『호서고고학』6·7, 호서고고학회.
- 양기석 외, 2001.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 이재환, 2012. 「統一新羅時代 北原小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 全德在,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41, 호서사학회.
-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209, 역사학회.
- 朱甫墩,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新羅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연구회.

<ABSTRACT>

Location and scope of the Silla Seowongyeong(西原京)

Kang, Min-sik

First, how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Silla installation Seowon-sogyong(西原小京) investigate whether advance to Cheongju. 494 years Silla army, but failed to advance in Cheongju, Chungju could take 550 years and accounted for Geumhyeon-seong(金峴城) and Dosal-seong(道薩城).

Silla 685 years has installed Sogyong(小京) in Cheongju. Sokeong was installed for various reasons. Seowonsogyong was installed to control the old Baekje area. It was also a strategic point for traffic heading north. And it is related to the Baekje revival of military activities.

After 685 years of Silla is installed in Cheongju, each had accumulated in the fortress and fields. The war situation was not completely finished yet. Therefore, Seowonsogyong center can be divided as was the large size of the acidic and flats. The group was taken from the building pieces and letters that are found in the plains with considerable acidity i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profession blind. Outside was a small acidic acid defensive Seowonsogyong.

Finally, a small installation of Seoul was a transitional aspect. 757 years after the actual installation 9 Ju(州) had no real role.

Key words : 9Ju 5sogyong(9州5小京), Seowonsogyong(西原小京), Seowongyeong(西原京), Seowongyeongseong(西原京城), Seowonsulseong(西原述城).